

PRADA



PRADA

ITALY - STYLE MAGAZINE - 7/1/2022 - Num.: 7-8 - Pag.: 59

Stylist: Luca Roscini - Frequency: monthly - Circulation: 511937



PRADA



PRADA

ITALY - STYLE MAGAZINE - 9/1/2022 - Num.: 9 - Pag.: 83

Stylist: L. Roscini - Frequency: monthly - Circulation: 511937





Cappotto e tuta
Prada

Nella pagina
accanto: pea coat,
tank top e
pantaloni
Valentino



PRADA



PRADA

ITALY - AD - 9/1/2022 - Num.: 488 - Pag.: 199

Frequency: monthly - Circulation: 50442

CAPPOTTO PRADA





► 27 agosto 2022

SPORT/STYLE

Moda



SPALLE LARGHE
Ispirazione Anni 80 per il nuovo cappotto: in pelle grigio topo, a doppio petto e con spalle esageratamente larghe. Indossato sulla tuta in vernice caramello, con stivali a punta quadrata e il collare in saffiano a fantasia stampata. Tutto **Prada**.

"BEST OF"

DAL CAPPOTTO A DOPPIOPETTO ALLA GIACCA DI PAILLETTES. DAL BLOUSON DI PELLE AL BLAZER DI MATRICE SPORTIVA. E POI IL BOMBER "ACADEMY", UN CAPO MACULATO E UNO DI VELLUTO. GLI OTTO PEZZI CHE NON POSSONO MANCARE NEL GUARDAROBBA MASCHILE DELLA PROSSIMA STAGIONE

di Paola Ventimiglia ◆ foto di Massimo Pamparana



Prada

Volumen imponente y
textura que infunden respeto:
Miuccia Prada y Raf Simons han
creado la gabardina de la temporada.
Rostro hidratado con Gel
Force Supreme de Biotherm Hom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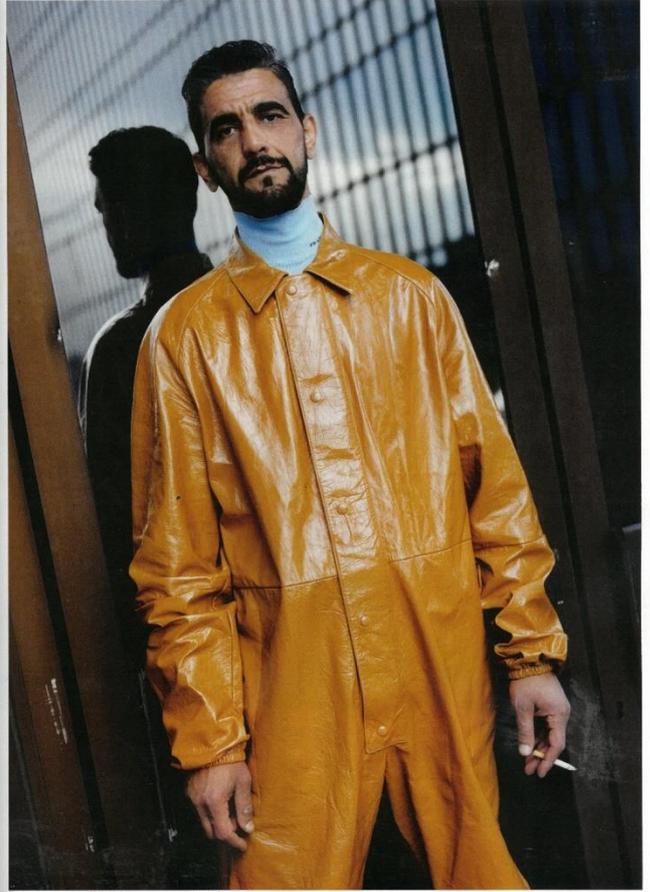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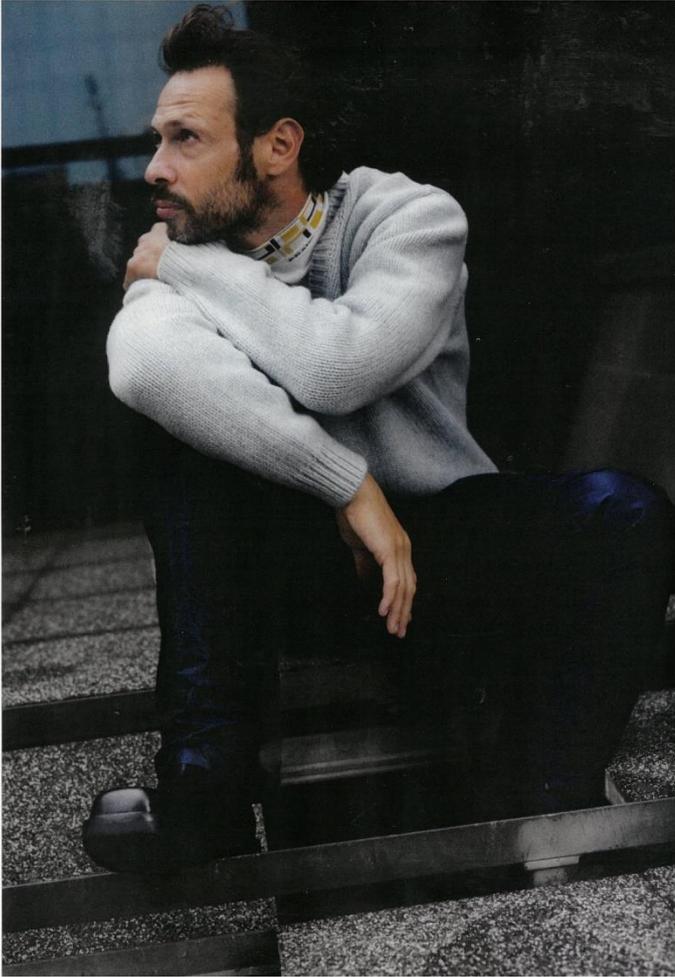
Arbeit ist ein Zustand der Realität.
In der Herbst/Winter-Kollektion 2022 von Prada
nähern sich Miuccia Prada und Raf Simons
den Hierarchien der Arbeitskleidung an.
Ob es ihre sozialistischen Wurzeln sind (sie
war in den 1970er-Jahren Mitglied der Kommu-
nistischen Partei Italiens) oder Simons Anfänge
im Industriedesign und seine Vorliebe
für Overalls - diese Kollektion feiert die
Arbeit in all ihren Facetten.

BODY OF WORK

FOTOS VON MACIEK POZOGA
STYLING VON STUART WILLIAMSON



Alle Bilder
aus der Herbst/
Winter-Kollek-
tion 2022 von
PRADA



ISSUE 4 | 2022 GQ GERMANY 1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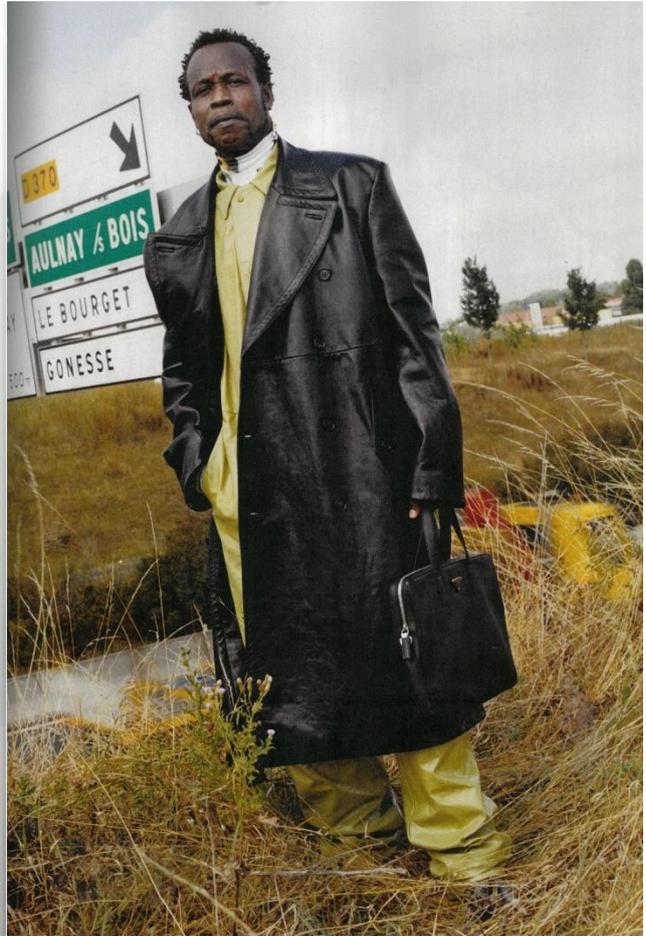
ISSUE 4 | 2022 00 GERMANY 1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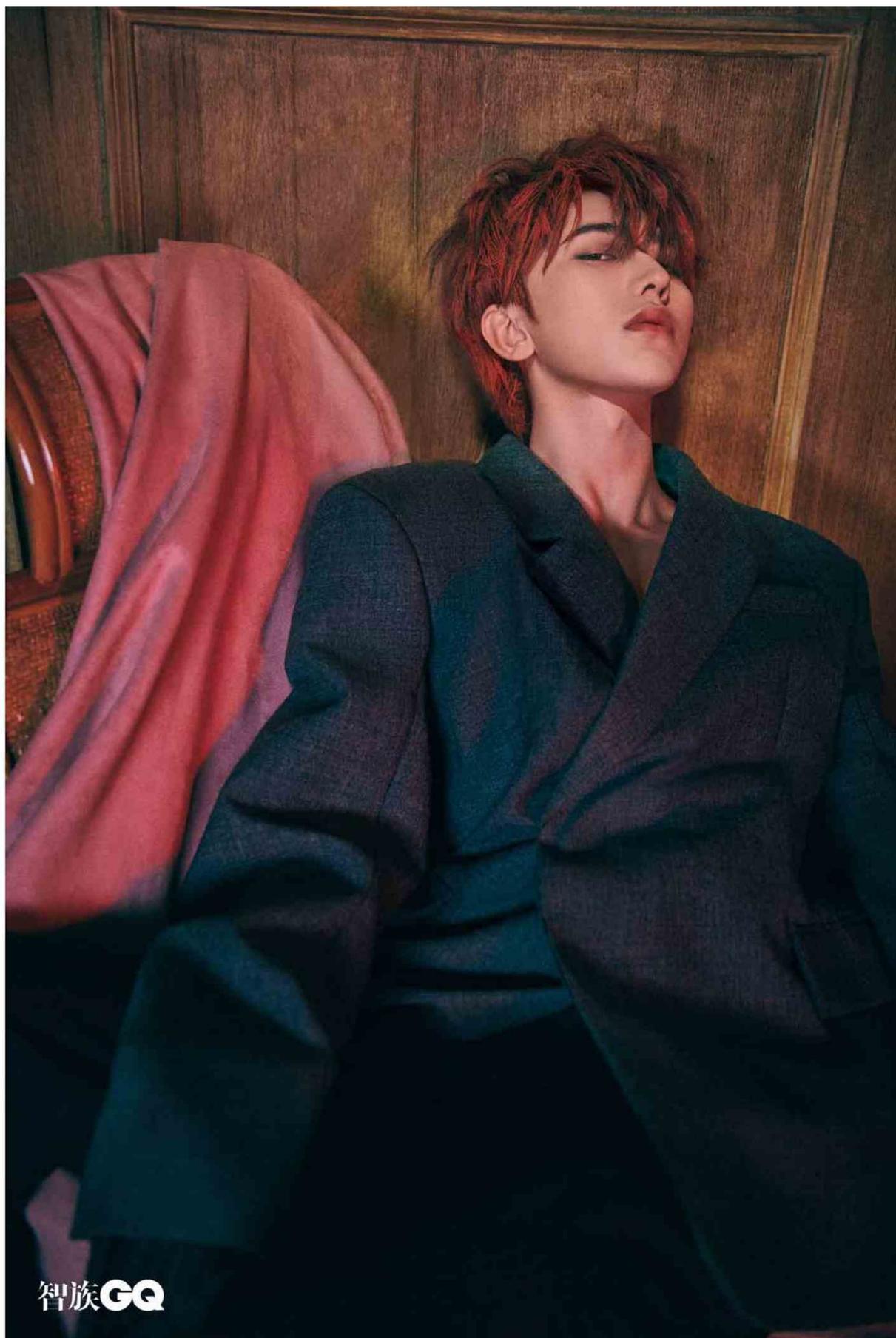
Bildagentur: Webber Represents;
Haare: Andrea Idini; Casting:
Julia Asaro; Produktion: Sonya
Kwasha von Baby Production;
Cast: Nani, Malissagne von
Agence Adéquat, Hugo Dillon,
Nadai Lapid, Jeanne Marie,
Fabrice, Rachid.

112 GQ GERMANY 2022 | ISSUE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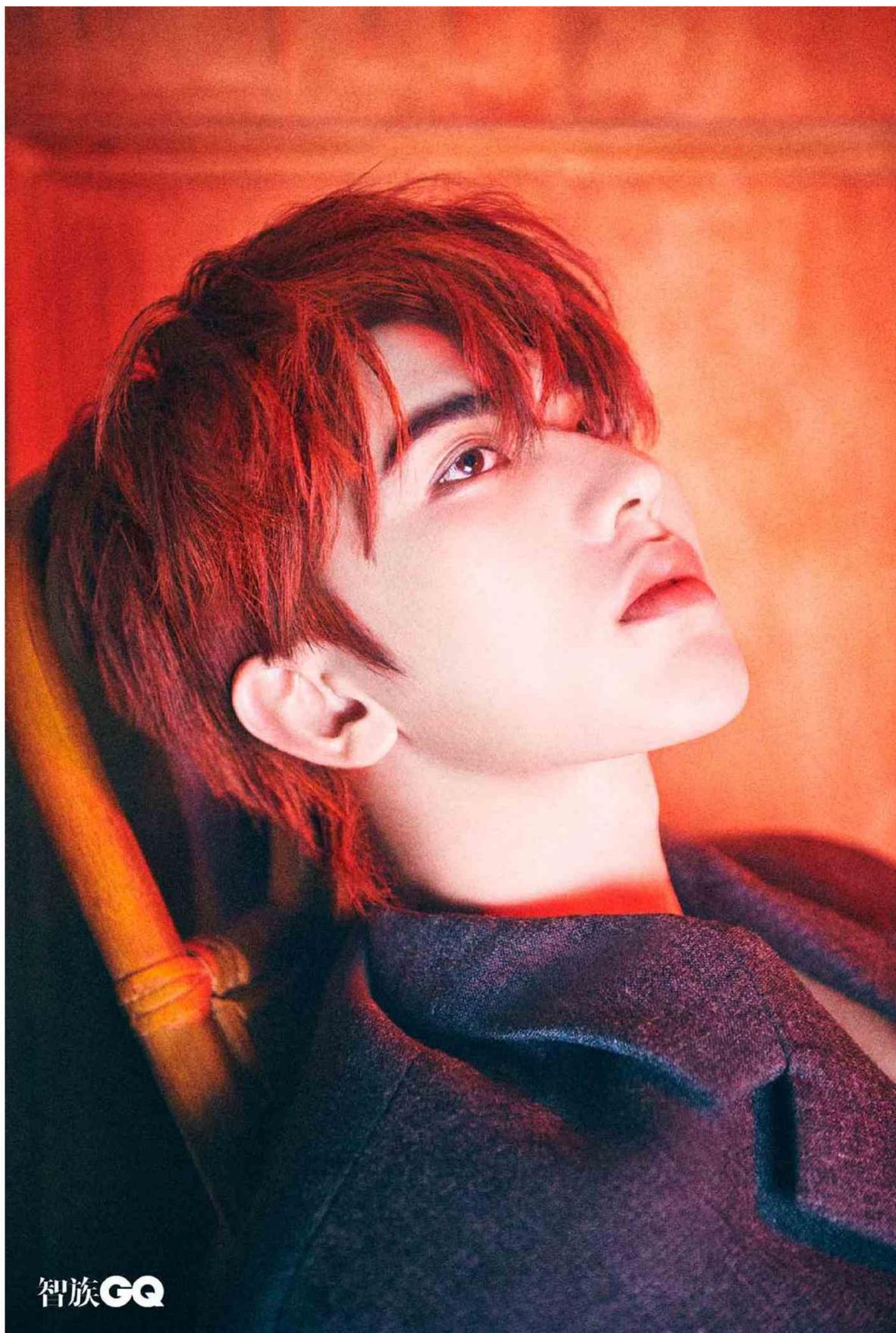


PRADA 樽領上衣、襯衣、長褲及皮鞋。



智族GQ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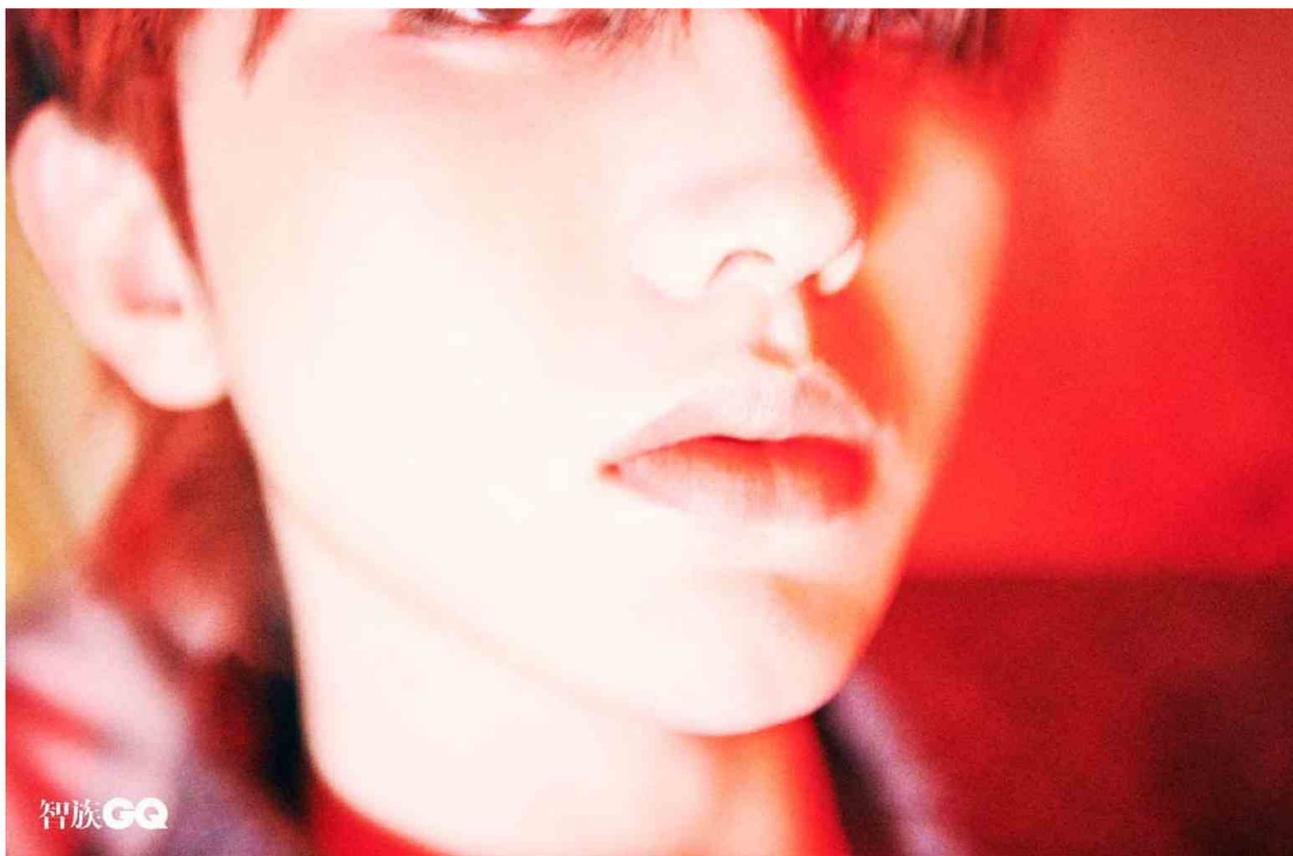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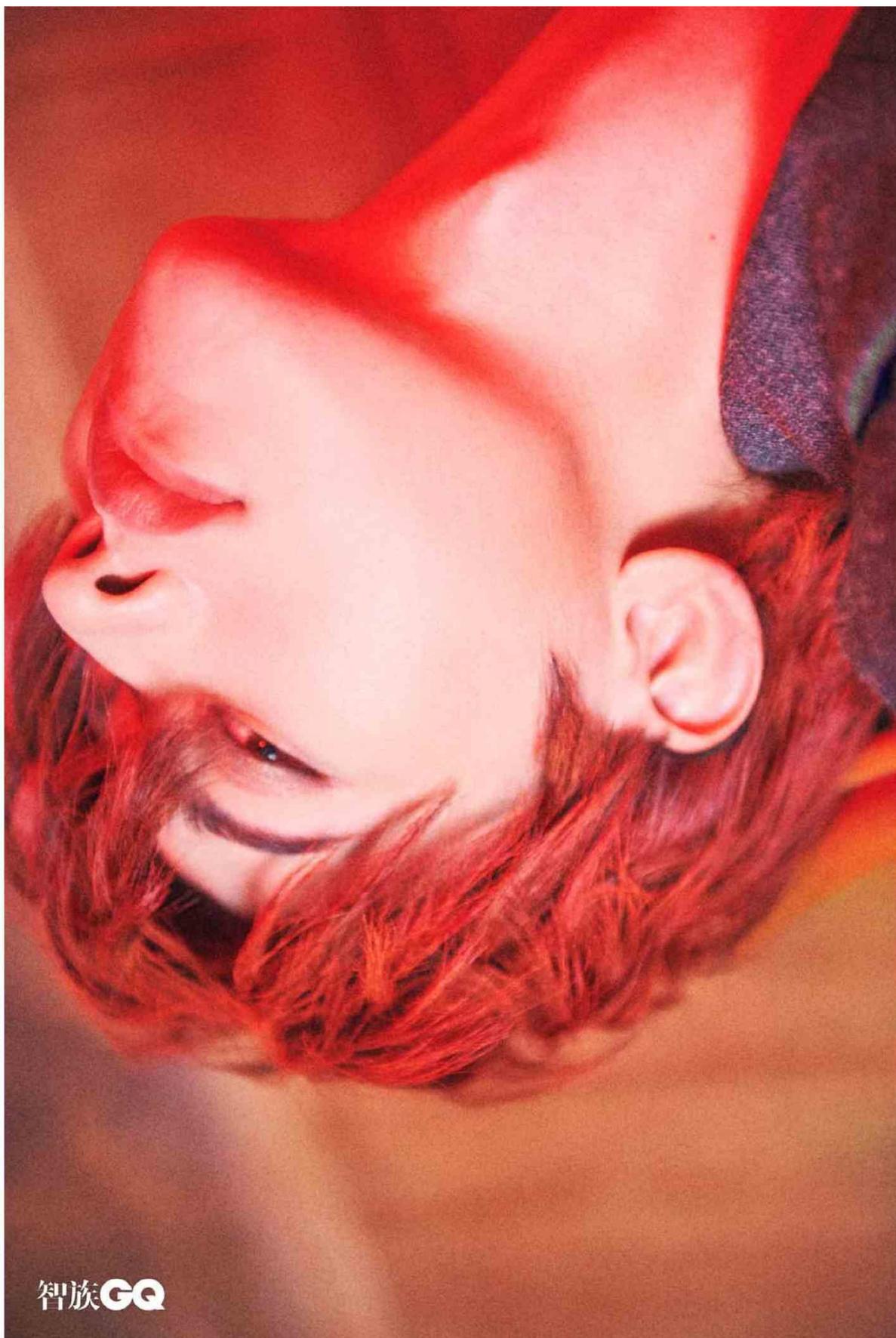


智族GQ

CINA - GQ - PRADA UOMO 2 - 01.09.22







智族GQ

CINA - GQ - PRADA UOMO 4 - 01.09.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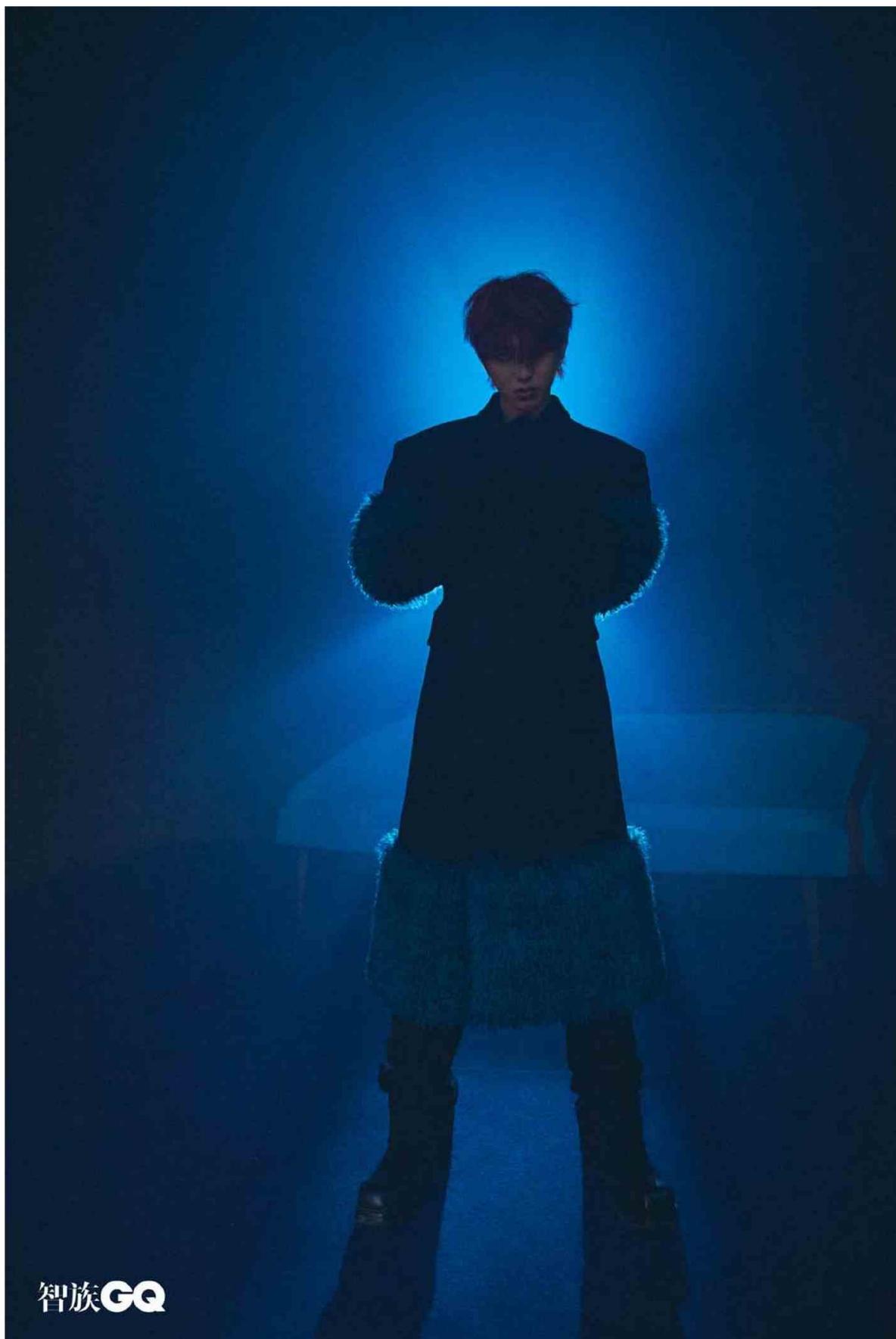




智族GQ

CINA - GQ - PRADA UOMO 5 - 01.09.22





CINA - GQ - PRADA UOMO 6 - 01.09.22



柔軟的心最有力量

WIN METAWIN

text by KAREN TSANG
photo by SIVAKORN CHOTANAKARNSATIT
styling by RACHATA BHUPATWANITCH
makeup by PHORNPICHID KHUMNGUEN
hair by THANUPOL THEPARAK
production by SERAPHIC STUDIOS



如果有留意Win的社交媒體，看到擁有一千四百萬追隨者的數目，你就會明白，他是怎樣的受歡迎！而如果你有留意他跟我們的訪談，看到他真誠的回答，你也會明白，新生代演員最吸引人的特質是甚麼。

做好作品

上次跟 Win 見面的時候，差不多是《流星花園》泰國版推出前，他憑《只因我們天生一對》、《因為我們依然天生一對》電視劇及《只因我們天生一對》電影版成了亞洲近年最強勁的新生代演員。此刻，他又再一次成為我們的封面人物，再次見面，看著拍攝不斷，一直有新作品推出，也就直接問他，能夠參與深受亞洲地區粉絲歡迎的《只因我們天生一對》及《流星花園》泰國版，有何感覺？

他微笑，說：「我實在很高興！從來沒有想過《只因我們天生一對》會如此的大受歡迎的。當參與任何戲劇時，我總是會盡能力去做到最好。那時當我知道大家都喜歡這套劇時真的非常興奮。至於參與《流星花園》泰國版，實在很榮幸及驕傲可以成為其中一份子去演出，但同時也感到有點壓力，畢竟以往的版本備受歡迎，難免會被比較。但最後反應很好，除了如釋重負外，更非常開心。當時大部分時間都跟其他幾位主角們待在一起，而現實裡我們也蠻熟，因此演繹起來很生動，也非常自然。」他頓了一頓，再微笑的補充說：「很想多謝粉絲們的支持！感謝他們一直的支持！（笑）我會繼續努力改善自己，會繼續推出好作品。」

期待動作片

沒多久前，Win 在一套新的電視劇《惡魔姐姐》裡，戲裡飾演獸醫，想到他現實中養有三隻小狗（Bentley、Cartier 及 Charlotte）的經驗，應該非常有助他飾演這個獸醫角色吧！他立即附和的，說：「當然有很大的幫助！」實在沒有想過，原來他養狗前是害怕動物的。「以前我害怕所有的動物，直至我養了狗才開始明白動物。當我擔演這個角色時，需要跟不同的動物拍攝，跟動物相處的經驗讓我很容易投入角色。在拍攝現場，有真正的獸醫在場教導我如何進行手術，以及怎樣照顧所有動物。」

大概也沒有人想得到，原來他最想挑戰的，是動作片。「在未來，希望挑戰自我，可以參與動作類型類的電影及劇集，因為我非常喜歡看動作片，而我也是一個好動的人，希望可以嘗試一下這類型的電影。」



歌唱鼓勵

最近，Win 剛剛完成了在泰國的演唱會。最初以為這是他的事業部署之一，沒想到原來不是。當時，我們談到疫情，剛好問他有沒有甚麼本來不在他計畫之內但因為全球大流行而成了最佳時機去開始的，他立即說：「唱歌！哈哈……我從來沒有想過粉絲會喜歡我的歌聲。當這個機會出現時我就好好把握，而更發現原來我享受唱歌。在台上唱歌的時候，我看著粉絲們，那一刻我突然感受到我的歌聲讓他們感到快樂，看到他們因此而快樂也希望將來可以繼續唱歌。最初，我很害怕，畢竟唱歌不是我有自信做得好的事情，感到有相當的壓力，後來我終於漸漸得到了信心。現在我在學習唱歌，希望改善唱歌技巧。」

而忙完演唱會事宜後，他開心的跟我們說：「我已經完成了今年要拍攝的企劃，現在正談洽明年的計畫了。團隊正籌備在其他國家及地方跟粉絲見面的活動（笑），這是一個我可以跟泰國以外的粉絲見面的好機會。」相信粉絲們這一刻已經相當期待了。

回饋社會

現年23歲的Win，是泰國當紅男星，也是亞太區受歡迎的演員，也是成功的創業家；上一次訪談，他說成為藝人之前已經創業，只是當上了藝人後獲得了最好的機會去拓展。問眼前這位創業家，Velato 雪糕店及 Souri 馬卡龍店，以及 Velence 生活品及時裝品牌等的生意如何，他認真的回答到：「生意還在做著，也一直在改良產品，也希望推出更多的產品。我很幸運我的粉絲們不只支持我這個人，還支持我在做著的事情。」而他也銳意拓展更多的生意範疇，他說：「是有計劃開立新生意的！我將會推出營養補給產品，而現在正在進行中。我投放了很多努力去拓展這個業務，有團隊會營運這個生意好讓我可以安心繼續演戲。儘管如此，我還是喜歡每個細節都可以參與及了解。」









年輕創業，他分享他的方式是事事親力親為，時刻從中學習。「我從很多不同的地方學習的，我一開始都是自己做生意及有團隊幫忙，因此我得到大量管理員工及做business plan的經驗，雖然經驗不算很多，但日復日的從經驗中學習，確實獲得不少。萬一有解決不了或想不通的時候，我父親一直是我的mentor，就會去問他的意見。」看著這位成功的創業者，究竟他如何定義成功創業者呢？他看進我眼裡，輕輕的說：「對我來說，我希望可以做一些跟社區服務有關的，這樣就可以推動改善我們的世界及社會。我至今還不知道如何可以做到，但希望有天能夠做到，也希望將來有天我的生意能夠做到這樣。」

他的愛好

然後，我們說到飲食，忍不住問他，是否依然還是嗜辣，喜歡吃有羅勒葉的小炒。他笑著回答：「是的，依然很喜歡是Pad-Kra-Prao（泰式羅勒炒肉碎）哈哈！我曾經以為隨著時間過去，我的口味也會改變，但直至現在為止，Pad-Kra-Prao還是最喜愛的菜式！我甚至喜歡到可以一日三餐都吃。而有時就算當我在外地，我還是會找個有Pad-Kra-Prao吃的餐廳。當我在米蘭工作時，我也吃了兩次Pad-Kra-Prao。」

由食物，我們談到他家中小狗的近況，好奇上次他說的搗蛋小狗們可有對著成長而變乖。聽到這個問題，他又大笑起來，「牠們還是一樣的搗蛋及不聽話，哈哈。牠們之間的搗蛋不盡相同，Bently怕我，所以如果我在場的話，牠比較不那麼頑皮。但如果我不在家的話，牠會將家裡反轉。Cartier充滿活力，非常好動，也懂得怎樣去取我歡心。Charlotte已經是一位非常聰明的婆婆了。」

溫柔的說

Win的溫柔是，他總在言談間感謝粉絲的支持，在訪談談到作品受歡迎他感謝，談到新嘗試唱歌他也開心粉絲能夠從他的歌聲得到恩喜，談生意他也同樣感謝粉絲的支持。而在訪談去到最後的時候，還是感謝粉絲的愛，叫大家留意他的的新劇《Good Old Days》及剛才談到的各地巡迴粉絲會面活動，更細心的叮囑大家：「在我們真正見面之前，希望大家好好照顧自己，保持身體健康！」

(나) 레더코트, 레더오버올 모두 프라다. (제이크) 재킷, 티플렉스니트 톱, 펜츠, 아너 펜츠 모두 프라다. (이안) 레더코트, 레더오버올 모두 프라다.
(희승) 코트, 실크 셔츠, 티플렉스니트 톱, 실크 펜츠, 부츠 모두 프라다. (산우) 프린티드 라우일론 파카, 레거스, 티플렉스니트 톱, 부츠 모두 프라다.
(정현) 피코트, 티플렉스니트 톱, 실크 오버올, 부츠 모두 프라다. (성훈) 재킷, 티플렉스니트 톱, 펜츠, 아너 펜츠 모두 프라다.



AIN'T NO STO

COVER STORY

68

with PRADA

KOREA -ESQUIRE - PRADA - 01.09.22



멤버들은 <MANIFESTO : DAY 1>이 새로운 엔하이픈 페이스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소년은 성년이 되었고, 팬데믹은 끝났으며 월드 투어가 코앞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 망설임 없이 달리는 새로운 시대가 드디어 열렸다.

fashion editor: KO DONGHUI | features editor: PARK SEHOI, OH SUNGYOON, PARK HOJUN | photographer: MOK JUNGWOOK



KOREA -ESQUIRE - PRADA - 01.09.22

(Opposite Page)
피코트, 터틀넥 니트 톱, 실크 오버올 모두 프라다.



코트, 실크 셔츠, 터틀넥 니트 톱, 실크 팬츠 모두 프라다.



KOREA -ESQUIRE - PRADA - 01.09.22

JUNGWON

악가 촬영 전에 엔하이픈 멤버들 다 같이 장난 치는데, 정원 씨 목소리만 들리더라고요. 독특해서.

아, 그래요?

그런 애들 들어본 적 없어요? 학생 때 다 같이 떠들었는데도 선생님이 꼭 잡아서 '양정원 조용히 해' 한답니다.

그런 적은 없었어요. 사실 저는 제 목소리가 특이한 줄도 몰랐거든요. 노래할 때 특히 그런 얘기를 들긴 하는데, 연습생으로 캐스팅당서 재미를 느끼기 전까지는 또 노래나 춤 같은 데에 관심이 전혀 없었으니까요. '내 목소리가 특이하구나' 생각한 건 <Land>(엔하이픈 데뷔 멤버를 뽑았던 오디션 프로그램) 방송 나가기 처음이었어요.

아예 몰랐다고요? 방송에서도 정원 씨가 등장하자마자 방시혁 프로듀서가 '양정원 군은 목소리가 굉장히 매력 있으니 중점적으로 들어달라'고 따로 언급할 정도였잖아요.

연습생 때는 칭찬을 거의 안 해주니까요. 잘하는 게 있어도 웬만하면 얘기를 안 해주고 고쳐야 할 부분만 알려주죠. 그래서 전혀 몰랐어요. 첫 번째 미션 곡인 시그널 송을 할 때에야 알았죠. 엄청 많은 사람이 같은 파트를 부르니까 자기 목소리를 찾기가 쉽지 않을 수 있는데, 제 목소리는 제가 들어도 딱 알겠더라고요.

그 후 벌써 2년이 지났어요. 정원 씨의 보컬에도 변화가 있었을까요?

있어요. 저희가 이번에 콘서트 준비하면서 AR 때문에 녹음을 다시 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1집 때 목소리를 들어보는데, 뒤달까, 아기가 같더라고요. 엄청 달고. 그간 활동하면서 두꺼워지고 성숙해진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엔하이픈의 리더이면서 동시에 팀에서 가장 귀여운 사람을 맡고 있어요. 쉽지 않은 일인데.

저도 신기해요.

귀여운 리더를 꿈꾸는 전국의 팀장들에게 비결 하나만 전해줄 수 있을까요?

(웃음) 비결이요? 음... (오래 고민하다가) 그냥 주어진... 주어진 상황에 맞게 자연스럽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타고나야 한다는 뜻이군요.

네. 네?(웃음) 아노 아노. 제가 정말 잘 몰라요. 저는 그냥 나이가 막내 측에 속해서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제가 또 가식적으로 핑계를 하는 걸 싫어해서, 정말 비결이랄 게 없어요.

정원 씨가 생각하는 양정원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저는 책임감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팀 차원으로 보거나, 제 개인적인 측면으로 보거나. 한번 뱌는 말이면 최대한 그렇게 해내려고 하고, 만약에 달성하지 못하면 자책을 많이 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편이죠. '이건 해야지' 했다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어떻게든 하는 것 같아요.

멘탈이 강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기도 하죠. 성격적인 측면인 것 같은데요. 외부 요인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는 않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도 쌓이긴 쌓이고,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터지겠죠. 사실 그게 요즘 고민이에요. 소망을 하거나, 열화를 보거나, 사람들 다 저마디의 스트레스 해소법이 있잖아요. 그런데 휴가 때만 되면 저는 정말 할 게 없다고요. 그래서 요즘 저만의 해소법을 좀 찾아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준비를 하면서 '정원 씨는 무대에 서고 팬들과 소통하는 걸 정말 좋아하는 것 같다'고 느낄 때가 있었어요.

맞아요. 사실 저희가 이번 활동 전까지는 팬들 앞에서 뭘 해볼 기회가 없었거든요.(엔하이픈은 코로나 정국인 2020년 11월에 데뷔했다). 그래서 음악 방송 같은 무대에 올라도 그냥 여러 스케줄 중 하나, '방송을 위한 촬영'처럼 느껴지는 측면이 있었죠. 그런데 요즘은 정말 매 무대가 새로워요. 팬들이 바로 앞에 계시고, 장소마다 오는 분위 다르고, 응원해주는 느낌도 다르니까. 그래서 요즘은 무대가 되게 재미있어요. 새로운 작업을 하는 느낌이고, 전까지는 힘도 달랐어요.

최근에 한 매체에 서 조사한 '아이돌 소통왕' 1위로 꼽히기도 했죠.

(웃음) 소통은 사실 딱히 열심히 하는 거라기보다 저도 재미있어서 하는 건데요. 그걸로 칭찬을 받으니까 기분이 좋긴 했어요. 뿌듯하죠.

정원 씨에게는 팬들과의 소통이 노력의 의미가 아니에요.

저는 기본적으로 뭘 해도 재미있어야 오래 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물론 노력의 의미도 어느 정도 있죠. 저희 팬 커뮤니티를 보면 정말 많은 팬이 많은 표현을 해주는데, 저희는 7명밖에 안 되니까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도 최대한 표현을 해야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이 우리에게 보내는 거 다 보고 있고, 듣고 있다고. 그런 게 팬들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라고 생각하게 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제 조그마한 표현도 다 좋아해주시니까, 그게 재미있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니까 계속하게 되는 거죠.

HEESEUNG

주말 아침부터 고생이 많네요.

괜찮습니다. 그래도 촬영 장소가 탁 트여 있고 에베르, 스튜디오같이 딱딱한 느낌이 아니라서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런 환경의 영향을 좀 받는 편이라.

속소에서 혼자 독방을 쓰죠?

네. 제가 가위바위보에 이겨서 그렇게 된 거긴 한데요. 그런데 돌아보면 다행인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인 시간이 없으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독방을 사용하면서 많은 부분이 변한 것 같아요. 혼자 생각할 시간이 많았고, 성격 면에서도 여유가 많이 생겼고.

단점은 없어요?

좀 외로워요.

아무래도 그랬겠죠. 나머지는 들, 넷씩 같은 방을 쓰니까 그들만의 이야기가 생기기도 할 테고, 또 치킨이라든가 시켜서 한끼 먹다가 '어 희송이 형한테 안 물어봤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어, 진짜 그런 때도 있었어요. 게가 잠깐 방에서 혼자 시간 보내다가 밖으로 나왔는데, 음식을 시켜서 먹고 있는 거예요. 도란도란 다 같이.

(웃음) 그게 사실 생각보다 쉽게 일어나는 실수인데, 당하는 사람은 굉장히 서럽죠. 그래서 어떻게 대응했어요? 서운하다고 토로했어요? 아니면 껴서 먹었어요?

저는 티를 안 내요. 껴서 먹기에도, 음식 양을 미리 생각해서 시켰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잘 넘겼죠. 그런데 설명하다 보니까 이게 되게 양심을 품고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것 같은데요.(웃음) 그런 에피소드도 있었습니까(하는 뜻입니다).

말형에다가 독방을 쓰니까 하는데 다른 멤버들과 거리감이 전혀 없어 보였어요. 멤버들이 저를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러면서도 굉장히 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고.

저희 막내나 니키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재미있는 사람이라고. 저도 그런 이미지, 웃기고 다가가기 쉬운 사람이라는 느낌이 좋은 것 같아요. 단체 생활을 하고 공동 목표를 갖고 핑계를 하나기다 보면 워낙 사소한 걸로도 부딪힐 수 있잖아요. 스트레스받을 일도 많고, 예민해질 부분도 많고. 그래서 저는 늘 유패한 분위기가 중요하지 않나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먼저 멤버들을 그렇게 대하려고 하죠.

니키 씨뿐 아니라 다른 멤버들도 엔하이픈에서 가장 재미있는 멤버로 희송 씨를 꼽는 것 같은데요.

솔직히 제가 그렇게 재미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봐주는 건 좋은데... 멤버들이 아직 아끼기 들어서, 어러서 제가 뭐만 해도 웃는 게 아닐까 싶어요. 정말 뭘 별짓 아닌 거, 이선균 배우님 상대모사 같은 것만 해도 빵 터지거든요.

정말 잘해서 웃은 걸 수도 있죠. 지면 인터뷰라 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머뭇거리다가) 짧게 해볼게요. 봉골래-

(웃음) 잘하는데요. 엔하이픈 리더를 정할 때 계속 리더로 거론됐는데 본인이 고사를 했었죠. 그것도 그저 관련한 형으로 남고 싶었던 마음이었을까요?

멤버들이야 형이 이끌어줬으면 좋겠지,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런데 사실 그건 리더가 아니라도 할 수 있는 부분 같았거든요. 그리고 이전 처음 얘기는 건데요. 이런 부분도 있었어요. 리더를 맡으면 제 스스로 놓치는 제 모습들이 있을 것 같다는. 제 안에서 생겨나는 문제점을 눈치채지 못한 채로 팀을 제 의도대로만 이끌고 가려고 한다거나, 그렇게 놓치게 될 것들이 걱정되더라고요. 그런 상황이 오면 나이 차도 있다 보니까 의견 차를 줄이는 게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했고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고, 그냥 멤버들을 바라보고 팀을 하나로 모으는 게 내 역할이 아닐까 생각했던 거죠.

자기객관화가 뛰어난데요. 20대 초반에 '이상적인 나'와 '실제 나'를 구분하는 것도 쉽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렇게 '역할 속의 나'까지 지심을 해보는군요.

저도 저를 잘 모르니까요. 저는 사실 제가 엄청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멘탈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라고. 그런데 요즘 보면 되게 감성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은근히 좀 사랑받고 싶어 하는 구석이 있고 제가 원래 집에서 막내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이 있나 싶어요.

언제 그런 걸 느꼈어요?

무대 위에서요.(웃음) 핀가를 하고 나면 많은 호응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기대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강한 사람도 가질 수 있는 기대 아닌가요?

그죠. 그런데 그 형태가 자신감보다는 사랑받고 싶은 마음에 더 가까웠던 거죠. 가족들한테 받은 그런 애정을 이제 다른 상황들에서 바라게 되기도 하더라고요. '아 내가 이런 면이 있는 사람이구나' 하고 저 도배워가는 것 같아요.

JAY

영상에선 엄청 강렬한 표정과 몸동작을 하던 게 이 씨지만, 직접 보니 말투나 표정이 정말 부드럽군요.

(웃음) 네, 원래는 이런 느낌이 맞아요.

최근에 '원분수'(원망, 분노, 수치심) 모먼트가 있었나요?

딱히 원망, 분노, 수치심이 든 것은 아니지만, 최근에 잠시 활동을 멈춰야 했던 때가 좀 안타까웠어요.

하필 이번 미니 앨범이 나오고 나서 'ParadoXXX Invasion'으로 활동하려던 타이밍이었죠?

맞아요. 활동해야 할 시기에 못 하는 게 일단 너무 안타까웠고, 원래 하려고 잡아둔 일들에 차질이 생기니까 모든 것이 힘들더라고요. 게다가 사실 타이틀만큼 기대하던 게 바로 후속곡인 'ParadoXXX Invasion'이었거든요. 첫 무대에서 녹화 마치고 내려와서 바로 그렇게 된 게 가슴 아팠어요.

이 예전 좀 헤쳐야겠어요. <I-Land> 같은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도 안무 하나를 한 팀이 완성하는 데 보통 7일 정도를 주지요. 그 기간 안에 발탁일이 준비를 해도 완벽하게 맞추기는 힘들고요.

그렇죠. 노래 하나를 무대에 올리려면 어마어마한 연습 시간이 필요한 셈이죠.

그렇게 완성한 노래와 안무는 보통 발표 후에 몇 번 정도 무대에 올리나요?

몇 달을 준비해서 평균적으로 한 곡으로 2주 정도 활동하면서 9-10번 정도 무대에 올려요. 그런데 이번엔 한번 올리고 올 스텝 되었던 거죠. 물론 그 뒤에 여러 관계자들의 배려로 몇 번의 발표 기회가 마련되긴 했습니다.

제이 씨는 어떤 시선과 시선을 찾아보니 정말 다알 한 걸 했거든요. 테니스도 치고, 기타도 치고,

테니스는 제 의도와 상관없이 학교에서 동아리에 들어가다 보니 잠깐 배운 정도라 그렇게 잘 지지 못해요. 스키랑 보드는 둘 다 타고요. 어려서부터 골프는 자주 쳤고, 볼링, 당구 등도 어느 정도는 다 해요. 물론 축구나 야구 같은 운동은 학창 시절에 다들 하는 운동이니 그 정도는 배웠고요. 그중에서도 골프는 중학생 때까지 진로 탐색을 위해 좀 진지하게 쳤죠.

악기로는 기타를 배웠고요.

개중에 지금도 애착이 가는 게 있어요?

골프랑 기타 연주하는 아직도 애착이 있어서 자주 해요.

팬들은 어린 제이가 기타 치는 모습을 보고 '제이는 천생뮤지션'이라며 좋아하더군요.

그때가 정말 어릴 때, 아마 초등학교 저학년 때였을 거예요.

이렇게 취미가 많은데, 혹시 더 해보고 싶은 게 있나요?

너무 많죠. 어릴 때부터 호기심 때문에 시체였어요. 뭔가에 꽂히면 그것에 관한 것들을 찾아보며 공부도 정말 열심히 했어요. 하나에 호기심이 생기면 그 궁금증이 해소될 때까지 다른 게 눈에 잘 안 들어와요. 관련된 유튜브 영상을 다 찾아보고, 그 유튜브 영상이 참고한 책을 사서 보며 팩트 체크도 해보죠. 그래서 대화를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보다 유별난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아, 왜 친구들 중에 뜬금없이 항공모함에 실을 수 있는 전투기 대수 알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그런 친구군요?

맞아요. 핀가에 꽂히면 그걸 꼭 파는 스타일이라 최근에는 잠시 활동을 쉬는 기간에 <007>제임스 본드 시리즈를 전부 다 봤어요. 매번 이런 식이에요. 본드 레드 피트에 꽂히면, 브래드 피트가 나온 영화를 다 봐요. 얼마 전에는 테일러링에 꽂혀서 라벨 모양에 따라 어떤 종류가 있는지, 알실을 밀는 방식에 따라 어떻게 나뉘는지 등등을 다 의뢰했어요.

덕후 기질이 좀 있군요.(웃음)

네, 있어요. 그런데 전 그런 기질이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완벽한데요? 우리 <에스콰이어> 피쳐팀에서 찾은 인재상에 딱 맞아요.

저도 가끔 생각해요. 아이들이 되지 않았으면 기자가 장래 희망이 아니었을까?(웃음)

혹시 직장을 옮기고 싶으면 <에스콰이어>에 만드시 지원하세요.

(웃음) 아니에요, 아니에요.(그러나 대답과는 달리 약지를 꺾어 확인했다.)

시간이 비면 주로 뭘 하나고 물으려 했는데...

보통 그런 거 합니다.(웃음) 테일러링 공부하고, <007> 시리즈 몰아 보고...

이번 미니 앨범이 엔하이픈 커리어 전체에서 어떤 지점인가요? 혹은 어떤 지점이면 좋겠어요?

마블 시리즈를 보면 페이지 1, 2 이렇게 나뉘잖아요. 이번 미니 앨범은 지금까지 우리가 지나온 모든 것을 다 포함해, 한 페이지의 끝 그리고 다음 페이지의 시작을 의미해요. 지금까지 발표한 이전의 곡들은 아직 혼란스럽고 방향하는 상태에 있는 지희의 정서를 담고 있었고, 그래서 하이픈 기호가 모든 곡마다 들어갔어요. 이번 앨범부터는 그 모든 방향을 끝내고 확고한 메시지를 전하는 작업들이죠. 그래서 하이픈 기호가 빠지기도 했고요. 앨범의 타이틀인 <MANIFESTO: DAY 1>의 의미기도 합니다.

방황하는 미성년의 시절은 끝이군요?

혼란하고 헛갈리던 것들이 정리된 상태로 보내는 것 번째 메시지라고 봐주세요.

JAKE

멤버 중 처음으로 작사에 참여했죠?

운이 좋았어요. 반영된 건 이번이 처음이지만, 예전부터 회사에선 멤버 모두에게 가사를 써볼 기회를 주고 있었거든요. 매번 열심히 노력했는데 이번엔 딱 'SHOUT OUT'이라는 곡에 제 가사가 반영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조금 놀랐어요. 주변에서 많이 도와준 덕분입니다. 특히 그 노래는 팬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현한 곡이라서 개인적으로 의미가 더 깊어요.

호주에서 오래 살았잖아요. 한국어랑 영어 중 어느 쪽이 작사할 때 더 편해요?

일상 생활에서 한국어를 사용하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작사할 땐 백이 약간 느껴져요. 아무래도 어휘력이나 표현 방식이 제한적이더라고요. 되도록 한국어로만 작사하려고 하는데 자주 영어 단어가 끼어들죠.(웃음) 근데 또 영어를 완전히 믿지 않아요. 이번엔 참여한 가사 역시 한국어랑 영어가 같이 들어가서 수월했어요.

아이들이 되고 싶어 무작정 한국에 왔다고 들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진짜 무모했어요. 열정이 넘쳤다고 볼 수도 있겠죠. 인생을 바꿀지도 모르는 결정을 즉흥적으로 했으니까요. 부모님과 형은 물론 친구들도 전부 호응이 있었으니까 제게 한국은 낯선 곳이 없거든요. 하지만 꿈을 포기하고 싶진 않았어요. 단 한 번도 그 선택을 후회한 적도 없었고요. 도전하지 않으면 성취도 없잖아요.

흔쾌히 허락한 부모님도 참 대단해요.

항상 감사하고 있어요. 내심 걱정은 많이 하셨겠지만 반대하진 않았어요. 꿈에 부풀어서 한국에 가겠다고 말하는 제 눈빛이 절실했다 봐요. 그전까진 한 번도 부모님에게 제 꿈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없었거든요.

학교 다닐 때 춤이나 노래를 배운 적 있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흔한 댄스 동아리조차도 들어가본 적이 없죠. 대신 바이올린을 오래 배웠어요. 강의를 가리지 않고 음악 듣는 것도 좋아해서 하루 종일 노래만 들은 적도 있었어요. 다른 멤버들에 비해 연습 시간이나 준비가 짧은 편이라 쫓아가기 위해 더 많이 노력했죠.

그래서 '성경'이라는 별명도 얻었잖아요. 오디션 프로그램 중 눈에 띄게 실력이 느는 멤버라고요.

맞아요. 가수가 되겠다고 한국까지 왔는데 약한 모습을 보일 순 없잖아요. 어릴 때부터 몰입하면 끝장을 보는 성격이었어요. 처음 꿈이 생겼을 때도, 연습할 때도 BTS 세바담 무대를 정말 많이 찾아 봤어요. 안무나 보컬을 참고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그 영상들을 보면 '나도 저런 멋진 무대를 만들어야지' 하는 동기부여가 되거든요.

스트레스가 쌓이거나 힘들 땐 어떻게 극복해요?

애초에 스트레스를 쉽게 받지 않는 편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럴 수도 있지 뭐'라며 흘러보내요. 일 상에서 소소한 행복을 느끼려고 노력하는 것도 있어요.

(선우) 티플렉스니트 톱, 팬츠, 이너팬츠, 부츠, 백 모두 프라다.
(상훈) 퍼감식코트, 티플렉스니트 톱, 팬츠, 부츠, 니크리스 모두 프라다.



재킷, 티플렉스 니트 톱, 팬츠, 이너 팬츠 모두 프라다.

(OPPOSITE PAGE)

(남자) 오버사이즈 레더 보머 재킷, 티플렉스 니트 톱, 팬츠, 네크리스 모두 프라다. (여성) 티플렉스 니트 톱, 팬츠, 벨트백 모두 프라다.



COVER STORY

76

KOREA -ESQUIRE - PRADA - 01.09.22

Esquire with *ENTHUSEN*

Esquire with *ENTHUSEN*

Esquire with *ENTHUSEN*

Esquire with *ENTHUSEN*

KOREA -ESQUIRE - PRADA - 01.09.22



Esquire with SMHYPSN

KOREA -ESQUIRE - PRADA - 01.09.22

Esquire with ENHYPEN



KOREA -ESQUIRE - PRADA - 01.09.22

Esquire with ENHYESEN

Esquire with ENHYESEN

Esquire with ENHYESEN

Esquire with ENHYESEN

KOREA -ESQUIRE - PRADA - 01.09.22



KOREA -ESQUIRE - PRADA - 01.09.22



KOREA -ESQUIRE - PRADA - 01.09.22

예를 들면요?

속소에서 멤버들이랑 맛있는 거 간식 시켜놓고 먹는 것? 같이 게임도 하고 수도도 달면서 여유 있게 시간을 보내는 게 힐링이 돼요. 야식 주문 담당이라 멤버들의 취향을 고려해 최적의 메뉴를 시키는 것도 은근 재미있어요. 직접 요리한 건 아니지만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 행복하더라고요.(웃음)

브이로그를 봤더니 맛있는 음식, 멋진 물건을 볼 때마다 멤버들을 떠올리더라고요. '이거 니키가 좋아하는 건데'라는 식으로요. 게이크에 게 멤버들은 어떤 존재인가?

매일요. 거의 24시간 함께 지내다 보니 정말 가족 같아졌어요. 오히려 너무 편해지지 않으면 신경 쓰고 있어요. 소중한 사람인 만큼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어요.

대범 전과 후 게이크는 어떻게 달라졌나요?

지금까지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려왔어요. 배워야 할 것이 너무 많았죠. 하지만 얼마 전 선보인 미니 앨범 <MANIFESTO : DAY 1>부터 조금 달라졌다고 생각해요. 그동안 활동했던 걸 뒤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곧 첫 월드 투어도 떠나고요. 출이나 보컬뿐 아니라 내적으로도 한 단계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소화하지 못했던 '엔진(엔하인 밴드)'을 만나는 것도 굉장히 설레요. 월드 투어를 통해 얼마나 많은 걸 배울지 벌써 기대되고요.

SUNGHOO

와. 무렵지에 등장하는 하얀 비단옷을 입은 정 귀공자의 느낌이 물씬 납니다.

팬들 중에서 얼음 왕자라고 해주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그런 느낌 때문인가 봐요.

전 아주 오래전에 성훈 씨가 피겨스케이팅을 하던 주니어 때 이미 이름을 들었어요.
제가 피겨 하던 시절에도?

예, 다들 여자 싱글을 좋아할 때 전 남자 싱글에 더 관심이 많았거든요. 게다가 박성훈은 그냥 선수도 아니고 전국체전에서 1위를 하던 주니어 스타 중 한 명이었으니까요. 그런 걸 보면, 성훈 씨는 뭐든 하면 끝까지 해보는 스타일인가 봐요.

그런 것 같기도 해요. 한번 시작하면 그것만 하거든요. 반대로 얘기하면 새로운 시도를 하는 걸 좀 어려워하는 성격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피겨에서 했던 경험들이 오히려 아이돌 연습생에겐 좋은 습관으로 작동했을 것도 같아요.

그렇죠. 피겨를 하려면 스케이트만 타는 게 아니라 현대무용도 배워야 하고, PT도 받아야 해요. 몸을 움직이는 근본적인 체력이 바탕에 깔려 있던 거죠. 선생님들도 체력은 인정해주셨어요. 끝까지 열심히 해내는 힘이 있다는 칭찬도 받았고요. 곧 그게 운동을 하며 배운 끈기에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해요.

동작 하나를 '얼마하듯' 완벽하게 해내는 정도도 보통의 연습생과는 달랐을 것 같아요. 피겨는 같은 동작이라도 완벽함에 따라 가산점이

달라지니까요.

아무래도 안무를 배우고 나면 일단 제 걸로 만들어야 하니까, 몸에 익히면서 계속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하긴 하죠. 거울을 보면서 연마하고 내 몸에 익어서 안경감이 생길 때까지 계속 반복해요. 그리고 나서 안경감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좀 더 자신감 있게 표현을 보여넣고요.

다른 멤버들은 이번엔 하필 'ParadoXXX Invasion' 때 활동을 멈춰야 했던 게 아쉬웠다고 하던데요.

맞아요. 그 노래 분위기가 참 좋았어요. 팬들도 정말 좋아해주셔서 '모 아니면 도' 때의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심지어 '모 아니면 도'와 'ParadoXXX Invasion'을 교차 편집해서 비교하는 영상을 만들어준 팬도 있었어요.

다행히 활동 기간이 연장됐다는 소식은 들었습니까.

정말 다행이었죠. 어제도 음방 무대에 섰어요.

감회가 새로웠겠어요.

일주일 쉬는 동안 체력이 벌써 좀 떨어졌더라고요. 리허설 끝내고 이온음료를 엄청 들이켰네요.

아이들과 스포츠 선수의 노력에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노력의 정도는 비슷해요. 정말 많은 시간과 공을 들이죠. 그런데 아이들은 외롭지 않아요.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요. 팬들도 있고 멤버도 있어요. 무대에 서 보면 알죠. 관객들의 호응이 내게 전해져 힘이 나는 느낌, 그런 종류의 희열은 스포츠 스타로서는 겪어보지 못하는 것들이에요. 운동할 때는 대회에 나서는 무대가 그냥 긴장되기만 했다면, 아이들은 그 긴장이 즐거움으로 바뀌죠.

저 궁금한 게 있었어요. 별명이 바리류잖아요?

맞아요. 저희 팬라이브에서 제가 하는 코너 중 하나예요. 이것저것 리뷰하는 채널이죠.

맞아요. 보니까 이것저것 리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본인이 가장 자신 있는 게 뭔가요?

운동이죠. 그러니까요. 동계 스포츠 리뷰를 하면 정말 재미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전 피겨스케이팅 성훈과 함께 보는 그랑프리 시리즈라면 저도 꼭 볼 것 같거든요.

너무 좋은데요? '성훈과 함께 보는 피겨'라면 저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하게 되면 크레딧에 저를 아이디어 제공으로 넣어주세요.

오하하. 그럼요, 그럼요. 이번 앨범에서 자랑해보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있어요. 이번 앨범에 있는 'SHOUT OUT'이라는 노래에 있는 제 파트를 자랑하고 싶어요. 팬들이 그 노래를 듣고 '성훈이 많이 늘었다'라고 칭찬해주시더라고요. 정말 뿌듯했어요. 그 노래를 콘서트 때 팬들과 함께 부르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다른 멤버들이 이번 월드 투어에서 가장 기대되는 모먼트로 뽕장을 꼽았어요.

그러니까요. 그때 우리가 다 같이 부를 수 있게 팬들이 다들 외워주면 좋겠어요.

뽕장은 알코르인데, 알코르 곡은 정해졌나요?

정하긴 했는데, 말할 순 없어요.

아까 선우 씨를 웃지 않는 게 이번 공연의 목표래요.

저도 선우와 마찬가지로입니다. 다들 월드 투어를 처음이니깐요. 저도 공연이 다 끝날 때까지 안 울어보려고요.

SUNOO

눈동자 색이 정말 예뻐요. 처음 보는 색이예요. 아, 정말요?(웃음)

혹시 먼 리서에게 초상권이 계산 건 아닐까요?

아니요. 없어요. 중증부도 때로 거슬러 올라가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들어본 예는 없어요.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고등학교 졸업 영상을 보고 나서야 선우 씨 캐릭터가 손에 잡히기 시작했어요. 후배들에게 보내는 영상에서도 애교가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애교가 좀 많은 것 같긴 해요. 평상시에 생활할 때도 그냥 몸에 밴 듯 자연스럽게 애교가 흘러나와요. 팀이라면, 자주 부리다 보면 애교도 점점 자연스러워진다는 것?

선우 씨가 그렇게 귀여운 말투로 말을 하니 벌써 우리 둘의 자리도 분위기가 부드러워요.

어, 정말 그런가요? 다행이에요.

사실 애교는 일종의 배려 같은 거군요. 상대가 어색해하지 않도록 해주는 배려.

그렇게 생각한 적은 없지만, 그럴 수도 있겠어요.

집에서는 어때요?

워낙 어릴 때부터 다른 사람한테 관심받는 걸 좋아했어요. 가족들 앞에서 춤도 자주 춰고, 노래도 많이 불렀고요. 사랑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하나뿐인 누나가 무척 예뻐했거든요.

누나랑 노는 걸 정말 좋아해요. 저는 데뷔하고 나서도 스के줄을 맞춰서라도 누나랑 놀 정도니까요. 둘이 팔팔 끼고 소풍도 가고 영화관도 가요.

저도 여동생이 있던 한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팔팔이라니요. 선우 씨도, 누나도, 부모님도 정말 행복했겠어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행복한 편이죠.

이번 'ParadoXXX Invasion' 뮤직비디오에서 선우 씨 원샷이 인상 깊었어요. 눈빛이 정말 강렬했죠.

다행이다. 그렇게 나오고 싶었던 거예요. 사실 뮤직비디오 작업을 하면서 그 원샷에 임팩트를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표정 연구도 많이 했고, 길어갈 때 몸으로 드러나는 에티튜드나 분위기도 오랜 시간 고민해서 표현해낸 거였어요. 그걸 알아봐주셨네요. 개인적으로 만족스럽게 나와서 저 역시 기뻐하던 중이었거든요.

계대로 봤더니 기쁘네요. 혹시 단 하나의 영상을 지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어떤 영상을 지우고 싶어요?

전 지우고 싶은 영상이 없어요. 흑역사도 다 나름의 추억이고 제가 가진 모습니까요. 나중에 보면 저는 오히려 흑역사가 더 소중한 수도 있다고 생각되

프린티드 라나입론 파카, 레더 오버올, 티몬네이트 톱, 부츠, 트래블백 모두 프라다.



COVER STORY

80

KOREA -ESQUIRE - PRADA - 01.09.22

레디크트, 리더오버올, 초커 모두 프라다.



거든요. 오히려 풋풋해서 좋을 것 같아요.
다른 멤버들이 가진 강점 중 본인도 갖고 싶은 게 있어요?

멤버들마다 부러운 장점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가장 탐나는 건 희승 형의 목소리 말가요? 다양한 걸 표현할 수 있는 희승 형의 목소리가 가장 부럽네요.

월드 투어를 앞두고 있는데 가장 기대되는 장면이 있을까요?

처음 등장할 때 팬들이 지르는 함성이랑 진짜로 들어보는 때랑이요. 관객석이 저희 응원봉으로 가득 찬 걸 보면, 전 아직도 종종 울컥하거든요. 특히 단독 무대일 때 더 그렇죠. 그런데 이번 투어는 지금까지의 공연보다 규모도 훨씬 크잖아요. 오히려 전 울지 않기 위해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 듯해요.

공연 중에 울지 않는 게 목표였네요.

맞아요. 일단 무대 위에서 울지 않는 걸 목표로 잡고 있어요. 한 번 울어버리면 끝이 없을 것 같아요.

하진 팬데믹으로 공연에 대한 갈망이 더 컸으니 울리하는 마음이 이해됩니다.

사실 <Land>가 끝나고 데뷔하고 나서도 한동안은 저희가 뭘 못하고 있는지 몰랐어요. 아예 경향이 없으니 '아 원래 다 이런가 보다'라고 생각하며 지냈죠. 그런데 팬데믹이 끝나고 한두 번 팬들과 소통하는 무대를 경험해보고 나니, 그제야 저희가 데뷔하고 나서 놓친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팬들이랑 직접 만나는 계기가 더 많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긴 해요. 이번 월드 투어는 그런 의미에서 그 아쉬움을 모두 풀어버리는 무대가 될 거예요.

NI-KI

한국 이름이 철수라고요?

제가 직접 고른 건 아니고 멤버들이 지어줬어요. 많은 분이 <행구는 못말려>에 나오는 김철수 아니냐고 물어보는데 그건 아니예요. 멤버들이 어떤 이유로 저에게 이런 이름을 지어줬는지 아직까지도 모르겠지만(웃음) 마음에 들어서 아무 말 안 했어요. 본명인 니사무라 리키는 일본에서 흔치 않은 이름인데 한국에서 철수는 흔한 이름이라는 점도 좋았어요.

한국어 발음이 정말 좋네요.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보람 있어요. 연습 때는 혼자 학원에 다니면서 한국어 공부를 했는데 많이 어려웠거든요. 지금도 교정을 받고 있긴 하지만, 멤버들이랑 거의 하루 종일 함께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실력이 되는 것 같아요. 요즘은 언어뿐만 아니라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도 배우고 있어요. 그래야 말도 빨리 늘고 가사도 잘 이해할 수 있겠어요.

네 살 때 마이클 잭슨의 공연 영상을 보고 감명을 받은 후 그와 같은 스타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고 들었어요. 니키가 생각하는 스타는 어떤 존재인가요?

예전엔 오라만으로도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스타라고 생각했어요. 예를 들면 눈빛만으로 사람들을 압도하는 것이요. 지금은 아니예요. 팬들과 자연스럽게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성장해나가는 사람이 진짜 스타인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곧 월드 투어가 예정되어 있죠. 전 세계 팬들과 사랑을 주고 받을 좋은 기회네요.

코로나 때문에 무대에 서본 경험이 많지 않아 긴장 반 기대 반이에요. 같은 공간에서 함께 노래를 부르며 시간을 보낸다는 건 의미가 커요. 빨리 멋진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춤 잘 추는 걸로 유명해요. 춤출 때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뭐예요?

전달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춤은 곡이나 가사에 담긴 메시지를 몸으로 보여주는 거니까요. 이번 세 번째 미니 앨범 <MANIFESTO: DAY 1>에선 다크한 분위기를 표현하기 위해 동작이 강렬한 편이었는데 저도 그렇고 팬들도 굉장히 좋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앨범은 그동안의 앨범과 분위기가 다른 것 같아요. 소년에서 남자로 성장한 엔하이픈의 모습이 담겼어요.

맞아요. 여태까지 낸 앨범에는 타이틀곡에 항상 하이픈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번엔 없어요. 달라진 모습으로 새로운 시작을 선언하는 셈이죠. 앞으로 우리만의 색깔을 점점 더 보여주겠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멤버들도 각각 한 명의 아티스트로서 존재감을 나타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호하는 춤 장르가 있어요?

협합을 제일 좋아해요.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근데 요즘 도전해보고 싶은 건 현대무용이요.

현대무용은 의외네요.

예전 오디션 프로그램 때 다른 연습생들이랑 다 같이 현대무용 레슨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때 가르쳐준 분이 저보고 여태까지 가르쳐본 학생 중에 가장 잘한다고 칭찬을 많이 해주셨어요. 앞서 춤은 전달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는데 현대무용을 배우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협합이랑 현대무용을 더해서 무언가 새로운 퍼포먼스를 만들어보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같이 무대에서 춤을 춰보고 싶은 아티스트가 있다면요?

샤이니 태민 선배님이요. 사실 초등학교 6학년 때도 교실에서 샤이니 선배님들이랑 같이 무대에 오른 적이 있었어요. 그 후로 완전 팬이 됐죠.(웃음) 같이 무대를 만들 수 있다면 영광일 것 같아요.

어린 나이에 큰 무대에 서는 게 겁나진 않았어요? 다른 곳도 아니고 도쿄도 들어갔어요.

겁이 나진 않았어요. 고민하지 않고 무조건 하겠다고 했죠. 소중한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더 컸어요. 평소에도 도전적인 편이거든요. 솔직히 많이 떨리긴 했는데 긴장감을 이겨내고 무대를 잘 마무리했을 때 느껴지는 기쁨이 더 커요.

월드 투어를 가면 짧음이 여가 시간도 있을 텐데 뭘 하고 싶어요?

뉴욕에선 제이크 행이랑 타임스 스퀘어에 가려고요. 형이 영어를 잘하니까 같이 다니면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관광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일본에 가면 오만엔에 온천에 가고 싶네요. 일본어는 제가 제일 잘하니까(웃음) 멤버들에게 일본에 대한 여러 가지들을 소개해줄 거예요. ●

(제이) 리나일본 라인코트, 티플레트 톱 두드 프라다.
(장원) 프린트 리나일본 파카, 티플레트 톱, 아담모 두드 프라다.
(제이) 리나일본 보머 재킷, 티플레트 톱 두드 프라다.



KOREA -ESQUIRE - PRADA - 01.09.22



TAIWAN - VOGUE - PRADA UOMO - 01.09.22



TAIWAN - VOGUE - PRADA UOMO - 01.09.22